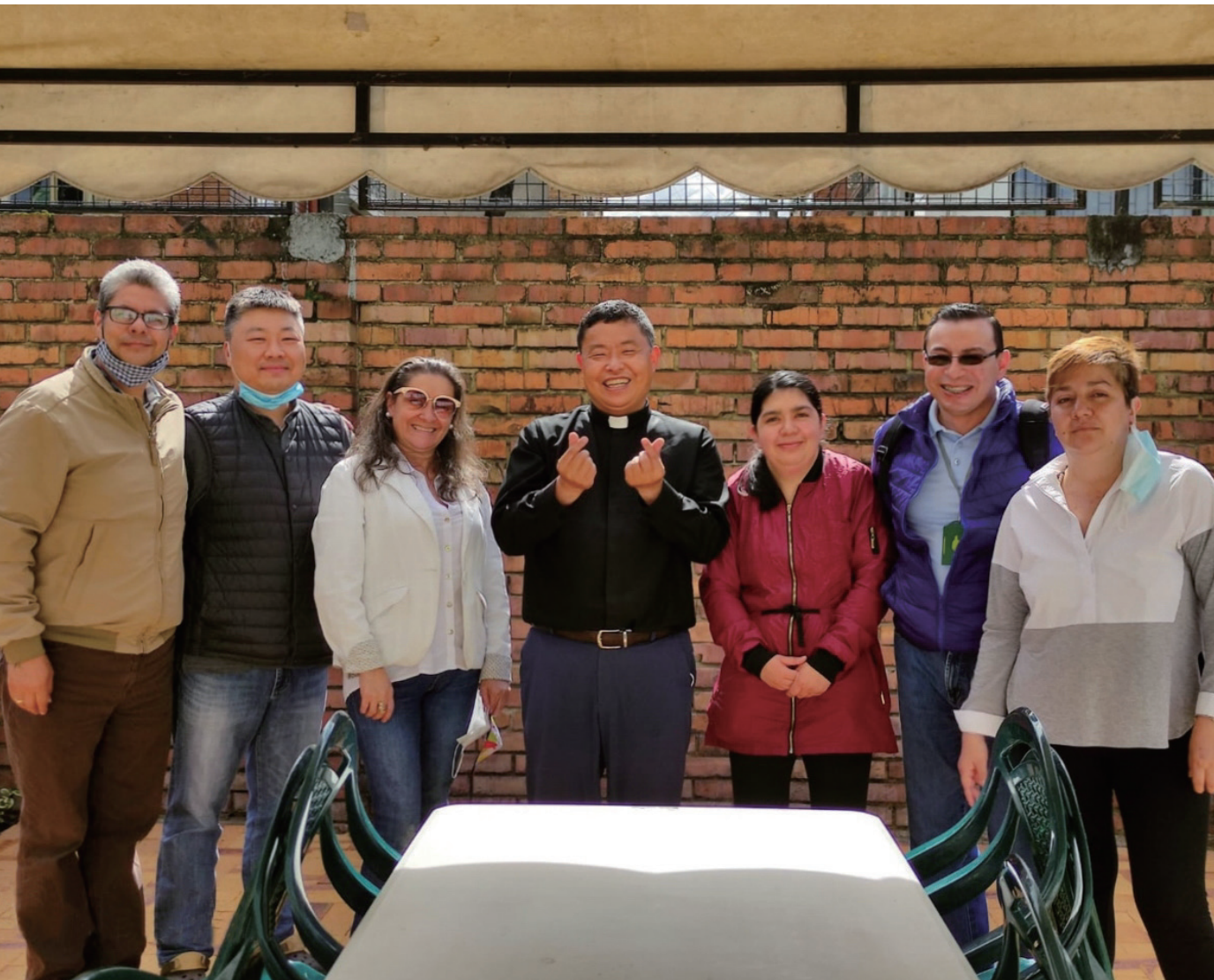


2022 여름

제219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식지

시로 사랑하여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 발행인 정순택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별관 525호 해외선교봉사국

전화 02)727-2407, 2409, 2424 | 이메일 mission@seoul.catholic.kr | 팩스 02)727-2411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해외 선교 사제

11개 국가 21명

• 독일 신정훈 미카엘

•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P.04)

•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일본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P.21)

김태근 베드로

김윤복 모세

신광수 베드로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성천 스테파노



대만

김재원 베드로사뵈 (P.18)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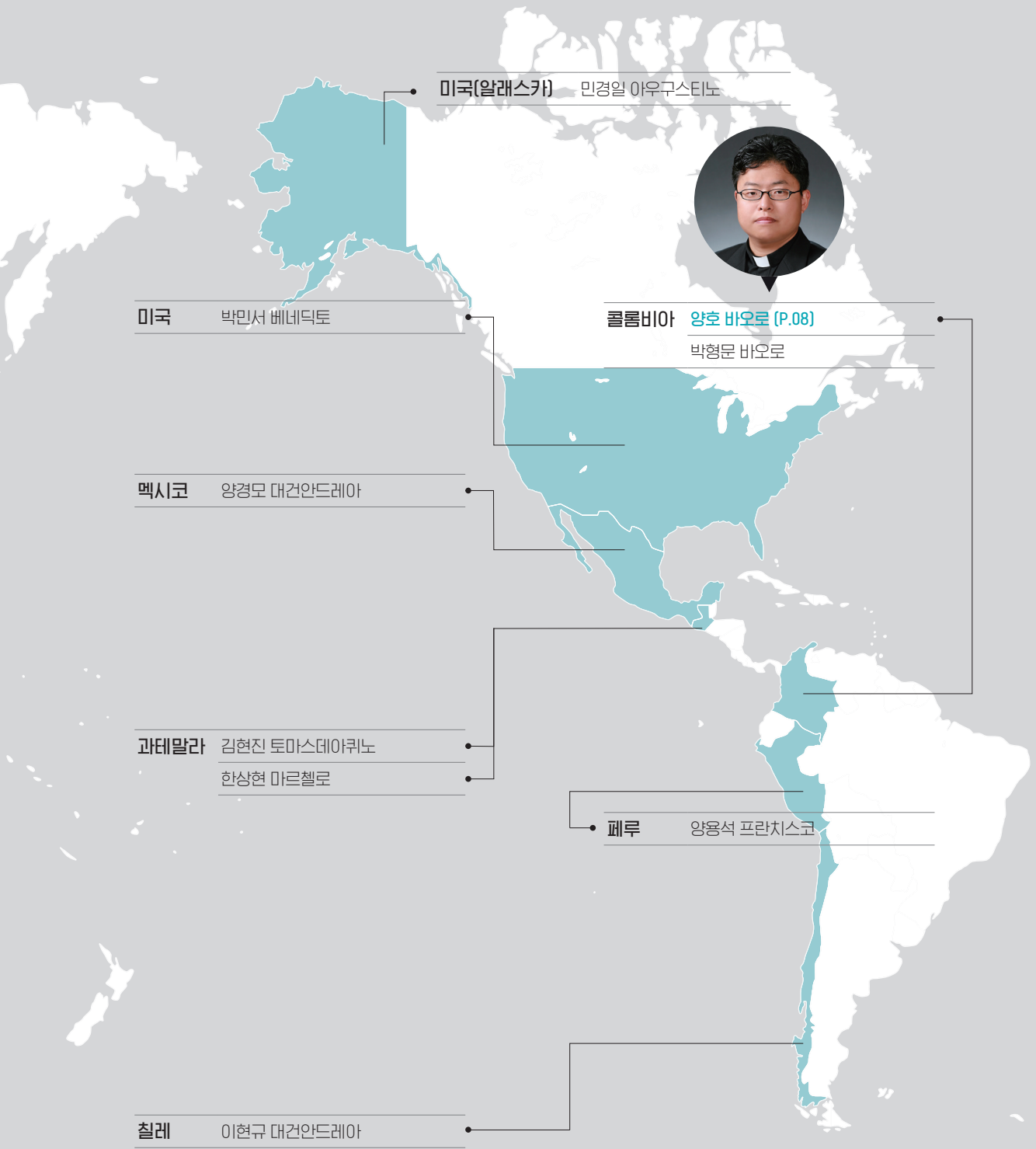
김경진 베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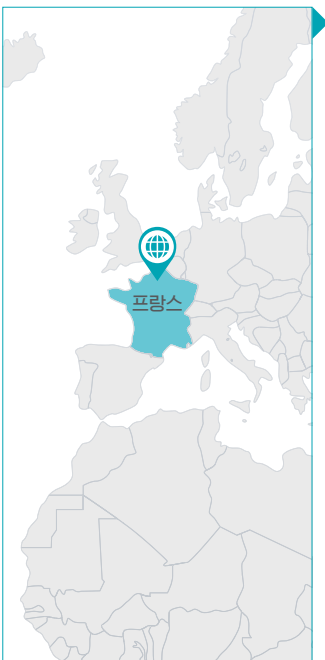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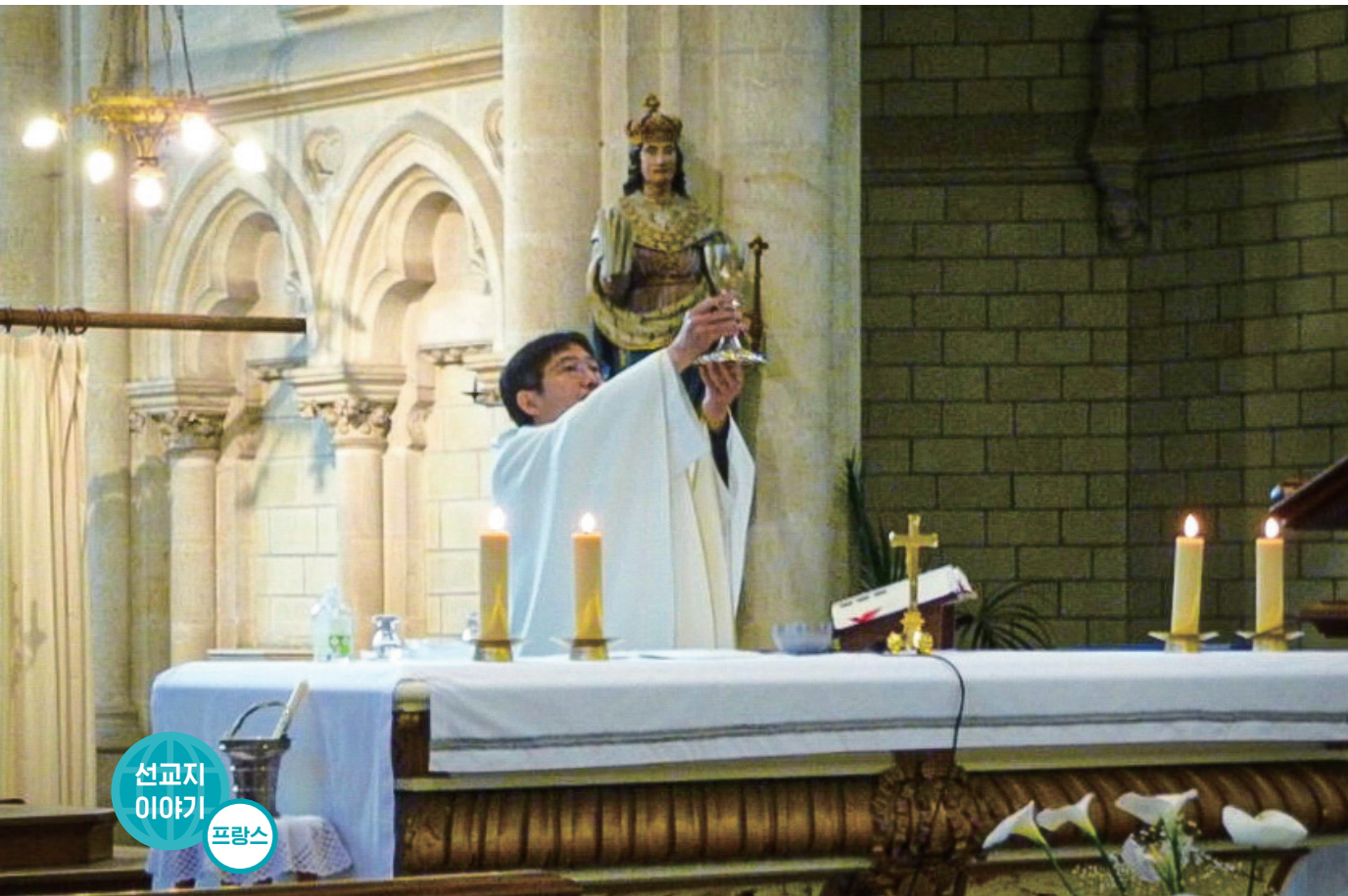


여름호 특집

1. 특집 | 필리핀 요셉의원 김다솔 신부님 (p.12)

2. 2022년 해외 선교 사제 파견미사 | 멕시코, 대만 양경모 신부님, 김경진 신부님 (p.16)





이광휘 베드로 신부

프랑스 뤼송 교구

“우리는 비록 주교가 우리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가장 힘든 직무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주교에게 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프라도 사제회 회헌 26항)

교구 이주 사목 소임 중에 2021년 8월 해외 선교를 발령받아 프랑스 Luçon(뤼송) 교구, Challans(샬랑) 본당에서 선교 사목 중인 이광휘 신부입니다. 한국에서 이주민을 만나서 도움을 드리다가 이제는 반대로 이주민이 되어 프랑스 본당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주

프랑스

수도 파리

면적 54.9만km²
[세계 48위,
한반도의 약 5.4배]

인구 6,558만명
[세계 22위]

종교 가톨릭 63~66%
이슬람교 7~9%
불교 0.5~0.75%
유대교 0.5~0.75%
기타 0.5~1.0%
무교 23~28%

성인 1,076명

복자 625명

수호 성인 승천하신 성모

성녀 잔 다르크
성 디오니시오
투르의 성 마르티노
아기 예수의 데레사

관할 구역 대교구 24개, 교구 72개
성직 자치구 1개
성직 자치단 1개
군종교구 1개

민과 함께 지내며 이주민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던 듯합니다.

프랑스는 처음이 아닙니다. 10년 전 4년의 연수 동안 프랑스 교회의 경험이 있었기에 초기 생활의 적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주 사목 그리고 지난 프랑스 연수는 지금의 해외 선교를 위한 준비가 되어 새로운 소임을 시작하는데 커다란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주시는 듯합니다.

뤼송 교구는 188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성 앙리 도리 신부님이 자라고 신앙과 성소를 키우셨던 고향 교구입니다. 도리 신부님은 파리의 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것을 각오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고 조선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국 후 6개월의 짧은 조선에서의 사목 생활 중 체포되어 굳건한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하셨습니다.

이 성인의 교구에서, 선교사를 파견하던 곳에서, 이제는 선교사를 필요로 하여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의 서울대교구에 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제 수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제들의 프랑스 선교를 통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교환을 이루고자 하는 복음적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샬랑(Challans) 지역은 뤼송 교구의 여러 큰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젊은 부부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본당으로 제가 작년 9월 처음 본당에 도착했을 때 코로나 펜데믹(막바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600석 규모의 성당이 거의 찰 정도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즉, 샬랑 본당은 프랑스의 본당 중에서 활발히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본당입니다.

뤼송 교구의 경우, 한국인 신부가 사목하는 것은 제가 처음이기에 본당과 교구의 주변 신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알파벳 문



화권도 아닌 저 멀리 아시아의 한국에서 젊은(?) 신부가 왔다고 고마워하는 신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과 한국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교우분들의 요청으로 한국 교회를 소개하는 짧은 강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다른 강연회 때와는 달리 작은 강당에 약 100여 명의 신자분이 오셔서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하겠지만, 저에 대한 애정과 응원으로 참석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많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온 사제에게 관심과 사랑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환대에서 그분들의 선한 지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처음 부활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프랑스 교회에서도 대림과 사순 시기에 참회 예절과 고해성사를 통해 성탄과 부활을 준비합니다. 물론 프랑스 교회가 옛날과는 다르게 많은 본당의 고해소가 상설로 운영되지 않고,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많이 약해져 이를 청하는 신자분들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주하는 본당은 매주 토요일 평일 미사 후에 한 시간 동안 고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림과 사순에 함께 사목하는 신부님들과 함께 본당 신자분들에게 판공성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정기적으로 신자분들에게 고해성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해 중에 신자분들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늘 긴장된 상태로 임하게 됩니다. 또한 신자분들이 고해 중에 질문을 하실 때 못 알아들으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신자분들은 못 알아듣는 외국인 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저에게도 똑같이 고해하러 오십니다. 그런 신자분들의 영적 선익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프랑스 교회에 봉사하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디만, 신자분들은 자주 저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많이 성장했



“

사제로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삶 역시
저는 행복합니다

”

다!”, “베드로의 발음을 점점 잘 알아듣겠다.”, “아름다운 미사였다! 고맙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그럼에도 언어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스스로 실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첫째가 되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런 유혹이 다가오는 듯합니다. 사실 외국인 사제로 살아가는 이곳에서야말로 더 많이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할 수 있기에, 사제로서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더 자주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미사 후에 신자분께서 저에게 해 주신 한마디 말씀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베드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줘~” 아마도 사제들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응원의 힘으로 살아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신자분들의 마음은 프랑스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제로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삶 역시 저는 행복합니다.



양호 바오로 신부

콜롬비아 보고타 대교구

+ 찬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부활 시기 보내고들 계시나요?

저는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 시대도 이제 정점을 찍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예전에 생활해 왔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편

콜롬비아

수도 산타페데보고타

면적 114만km²
[세계 24위,
한반도의 5배]

인구 5,088만 2,891명
[세계 29위]

종교 가톨릭 79%
개신교 14%
기타 7%

성인 4명

복자 13명

수호 성인 치킵키라의 성모

관할 구역 대교구 14개, 교구 52개
군종교구 1개
대목구 10개

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습관화되었던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화의 흔적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성주간: Semana Santa

2019년 12월에 본당을 맡았지만, 코로나로 성삼일 전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전의 모습으로 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 예식’이나, 성금요일 아침 100명이 넘는 신자들과 함께 본당 관할 구역을 돌며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70~80대 어른 신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공동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활 성야: 성삼일 전례의 정점인 부활 성야 미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구약의 독서를 마치고 ‘알렐루야’를 부를 때, 부활하신 예수님상을 신자들이 가마에 모시고 입당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때마침 울리는 성당 종소리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3시간 이상 걸린 부활 성야 미사를 마치고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교우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부활의 기쁨이 제 마음에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24차 아미칼 모임(중남미 선교사 모임): “일어나 비추어라.”(이사 60,1)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아미칼 대면 모임이 7월 4일(월)~8일(금)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아미칼 모임에는 주교회의 해외 선교를 담당하시는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님과 총무 김동원 베드로 신부님이 함께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 교회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중남미 선교사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총 10개국 60여 명의 선교사가 참가하는 이번 아미칼 모임에서는, 2년여의 코로나 시대의 상실과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는 한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들의 삶은 어떤야 하는지 토의할 예정입니다.



10년

6월이 되면 남미에서 산 지 10년이 됩니다. 페루에서 5년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5년. 총 10년, 긴 시간이지만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무가 한해 한해 나이테를 만들어가듯, 시작과 마침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미에서의 첫 10년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좋은 나무는 곱게 맺어진 나이테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의 사제 생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좋게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도 생일날이 다가오면 전 화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봐 주시는 페루 트루히요의 로마 본당 교우분들, 보고타 엔가티바 로스 세로소스 본당 교우분들 그리고 선교센터 미사에 함께 해주시는 교우분들에게 감

사 인사를 전하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교 나오기 전과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된 것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성경 말씀으로 제 대답을 대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3-5)

사랑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도 지향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육 간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집 기사

필리핀에 있는 요셉의원은 2013년부터 시작된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의 분원입니다. 해외선교봉사국 소속은 아니지만 해외선교와의 공통점이 많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김다솔 야고보 신부

필리핀 요셉의원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요셉의원에 부원장으로 있는 김다솔 야고보 신부입니다. 어느새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 온 지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은 한국과 많은 면이 다릅니다. 날씨며 건물이며 사람까지 많은 것들이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저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개월째에 접어드는 요즘은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보다도 필리핀 요셉의원에 오기 전부터의 가장 큰 걱정은 이곳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필리핀 요셉의원이 하는 사업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및 약 처방, 수술 지원이 있고 근처 지역 260명 아이를 대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무료 급식 사업, 식료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종하신 한정관 신부님의 유지를 잇는 ‘집 지어주기’를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50여 명의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빈틈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았던,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요셉의원은 세 지역, 260명의 아이의 점심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강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강 주변 땅은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이미 공장 폐수로 인해 검게 변한 지 오래입니다. 물고기가 살아야 할 강에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하고 사람 몸에도 닿지 못할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라도 사람들은 다닥다닥 몰려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는 아무 곳이나 버려져 있고, 동네에 개와 고양이는 어찌나 많은지 똥과 오줌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집은 찾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사 와서 받아놓고 쓰기도 합니다. 전기는 겨우 들어오지만, 전선도 여기저기서 끌어와,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닿을 만큼 열기설기 되어있기 일쑤입니다. 여기 사는 이들의 수입은 넉넉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 먹고 살거나,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좋은 물건을 내다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집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땅, 낮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되니 마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필리핀 요셉의원

후원 070-4688-3412
문의 [통화 가능 시간: 13시~17시]

후원 우리은행
계좌 1005-201-940450
예금주: [재]천주교서울
대교구필리핀요셉의원
후원회

속에 참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까?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은 반만 맞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적응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 왔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사람들을 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환대’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낯선 이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마저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고 선포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도 환대의 정신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제자들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에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필리핀 요셉의원이라는 곳에 와있지만, 저에게도 이곳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이웃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 되어, 이곳의 삶을 살기 위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저 자신부터 이곳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되고, ‘이곳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길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느 곳에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곳, 아니 제가 사는 우리 동네에도 분명 그분의 부르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의 여정을 잘 걸어 나가겠습니다.



해외 선교사제 파견미사

2022. 5. 4

양경모 대건안드레아(멕시코 몬테레이), 김경진 베드로(대만 신주) 신부님들의
파견미사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새로 파견받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2

선교 사제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전달 예식

3

선교 사제 파견 축복 예식





김재원 베드로샤넬 신부

대만 신주 교구

찬미 예수님!

코로나 시대에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비교적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 하던 대만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연일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백신 접종률과 방역 수칙 준 수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과는 달리 봉쇄 정책이 아닌, 점진적인 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본당의 미사는 원래대로 거행할 수 있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

대만

수도 타이베이

면적 3.6만km²
[세계 136위,
남한의 약 1/3]

인구 2,381만명
[세계 57위]

종교 불교 35.3, 도교 33.2%
기독교 3.9%
전통도교 또는
전통유교 10%,
기타

관할 대교구 1개
구역 교구 7개

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때가 다시 오길 희망합니다.

대만에서 선교사로 살면서 처음에는 “젊은 신부한테는 잘 맞지 않는다.”, “열정만 가지고 있다가는 일찍 소진하게 된다.”, “해도 소용없다.”, “대만은 선교가 어렵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가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던 분이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선교사들이 활력을 잃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문제들이 체감되지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을 살아보니, 그분들의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알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년여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대만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활력 없는 교회, 노령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회에서 천주교는 대개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신을 믿는 종교였고, 성소자가 거의 없어 외국인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종교, 혹은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하는 자선 단체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대체로 수동적이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보다는 이미 오래된 신자들이 습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변화도 반응도 없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종종 들게 되었습니다. 생활은 무료해지기 쉬웠고, 열정을 지속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성과에 힘이 빠지고 지쳐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전의 많은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이러한 교회의 상황에 힘을 모두 소진하고, 이제는 발전보다는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4년여의 세월이 지나서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교회가 성직자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발맞추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해서 혼자 속력을 내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속도를 맞추면서 꾸준히 그들과 함께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하는 이 여정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것임을 믿으며 희망을 품습니다.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

일본 오사카 대교구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대교구 고베 스즈란다이 성당에서 사목 중인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 부활 인사발령에서 오사카를 떠나 고베로 이동하라는 권고를 받아 고베시의 스즈란다이라는 작은 마을의 성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스즈란다이는 고베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산을 3개 정도 넘어야 나오는 작은 동네인데요, 해발 300m 위에 있는 산골동네라 바다 옆도

일본

수도 도쿄

면적 377,975km²
[세계 61위,
한반도의 약 1.7배]

인구 1억 2,615만명
[세계 11위]

종교 신도(神道,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 84%
불교 66.8%
기독교 1.5%, 기타

성인 42명

복자 396명

수호 세례자 요한, 성

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관할 대교구 3개, 교구 13개

구역 성직자치단(성공회) 1개

심보다 기온이 3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춥지만, 여름에는 바람이 많고 시원한 곳이라 더위를 많이 타는 제가 지내기 적당한 곳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고베 시내에 나가는 데 1시간, 주교좌 성당이 있는 오사카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경하는 마음으로 시내에 일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열망을 가지고 일본에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첫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본어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지냈고, 작년 2021년은 오사카의 후세 성당에서 사목 연수를 겸해 본당 신부님을 도와 미사를 집전하며 지냈지만,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벗어나 일상생활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 그동안 신자분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는 작은 성당이기 때문에 식사와 청소는 스스로 해결하고 본당 사무는 신자분들과 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이 호의를 가지고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경직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며 버텨내기 힘들다고 알려졌지만, 가톨릭교회는 반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오사카 교구만 해도 80명 정도의 신부님 중에 반수 이상인 40여 명의 신부님이 선교사와 수도회에서 파견된 사제이고, 교구 소속의 신부님 중에서도 일본인 신부님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상주 사제가 없는 성당들이 늘어나고, 신자들은 언제 자신들의 성당이 신부님 없는 성당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은 제가 성당에 머무르기만 해도 기쁘고,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무엇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제적 사랑이 피어난다는 하느님의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곳에 계신 신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꺼이 선교사를 파견해 주신 서울대교구의 교구장님과 사제들을 후원해 주시는 교구의 신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미사와 성사만으로도 기뻐하는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저 또한 잘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작은 은총의 감사는 일본 교회 신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선교지에서 목자 잃은 양 떼를 보살피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고생하시는 모든 선교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제적 사랑이
피어난다는
하느님의 진리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해외 선교사제 명단

[11개 국가 21명]

국가명	이름	국가명	이름
과테말라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일본	김태근 베드로
	한상현 마르첼로		김윤복 모세
대만	임창재 요한마리아비안네		신광수 베드로
	김재원 베드로사뵈엘		김필중 세례자요한
	김경진 베드로		안민우 아우구스티노
미국	민경일 아우구스티노(알래스카)		김성천 스테파노
	박민서 베네딕토(농인 선교)	프랑스	이광휘 베드로
스페인	고가람 스테파노	콜롬비아	양호 바오로
페루	양용석 프란치스코		박형문 바오로
독일	신정훈 미카엘	칠레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 선교 중이신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멕시코	양경모 대건안드레아

선교를 위한 기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고,
순교자들의 신앙 위에 한국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기도와 희생과 열성이 부족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당신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시어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교의 열정으로 하나 된 저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 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니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덕금 강명희 강문주 강민정 강서혜 강선경 강수희 강신득 강영자 강운복 강이순 강정애 강정희 강지현 강진선 강춘희 강판현
 강풍자 강혜란 강혜신 고경식 고영임 고윤숙 고익영 고혜숙 박민지 박상원 박정현 박희경 구가은 구모석 구민영 구민희 구분강
 구승모 구연모 구자순 권경애 권성혁 권오경 권오영 권옥수 권익란 권효정 길신영 김경란 김경희 김공례 김국희 김규엽 김규태
 김금자 김기수 김기연 김기용 김길옥 김나은 김나현 김난옥 김남균 김덕수 김도연 김동구 김동현 김란숙 김명춘 김명희 김묘식
 김미경 김미숙 김미순 김미자 김미재 김미화 김민성 김민수 김민옥 김민주 김민준 김병국 김봉조 김봉흠 김상욱 김선태 김선화
 김선희 김성년 김성덕 김성호 김성희 김세령 김세인 김승태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자 김숙희 김순금 김순동
 김순자 김순희 김승규 김승희 김시훈 김신소 김애생 김애정 김양자 김연수 김영기 김영덕 김영미 김영석 김영신 김영애 김영운
 김영조 김영희 김옥심 김옥제 김완식 김용기 김용혜 김용희 김우경 김원선 김원중 김원철 김월순 김유경 김유빈 김유정 김은성
 김은자 김인복 김인수 김인자 김지원 김장묵 김재동 김점숙 김점소 김정란 김정복 김정숙 김정애 김정오 김정원 김정웅 김정희
 김종철 김종필 김주경 김주현 김중자 김지민 김지애 김지연 김진영 김진홍 김진희 김찬영 김채희 김청자 김춘숙 김충희 김태순
 김태운 김평화 김학덕 김한근 김현상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준 김혜선 김혜숙 김효준 김후덕 김희령 김희선 김희연 김희정
 나범수 나석연 나성재 나정애 남기완 남승민 남정희 남하현 노승주 노현주 노혜영 맹미숙 모명자 문억남 문월순 문준철 문태주
 민은하 민정모 민지희 민흥기 박경숙 박경진 박경희 박고운 박금소 박기식 박기철 박남주 박다은 박명량 박명숙 박미자 박병선
 박봉자 박상희 박설진 박성규 박성분 박세진 박수진 박순희 박승보 박연수 박영숙 박영신 박영주 박옥희 박용자 박윤경 박은덕
 박은진 박은호 박정남 박정숙 박종숙 박주영 박지현 박진복 박진수 박진희 박찬중 박춘옥 박태련 박태안 박태경 박혜숙 박효숙
 박효진 반세록 방수희 방애자 배귀선 배근아 배수정 배영민 배현열 백명옥 백선혜 백승주 백용남 백은숙 백일순 변광국 변신호
 변혜숙 서대관 서수용 서숙자 서순자 서안나 서영숙 서영순 서영진 서용재 서유진 서주영 서지영 서효숙 석정미 석진혁 성경희
 성락숙 성원경 성윤석 소정운 손명숙 손봉희 손태호 손효영 손희경 송근선 송금선 송기덕 송매자 송문영 송민석 송민우 송영남
 송이중 송재일 송진아 송평근 송혜원 신경애 신미경 신상인 신서영 신선미 신선희 신솔아 신수경 신수점 신양선 신운순 신유리
 신윤숙 신재승 신재영 신정삼 신정환 신종훈 신지은 신준오 신 현 신현화 신혜옥 심영란 안경숙 안다영 안명순 안문숙 안성준
 안숙영 안영춘 안재영 안종임 안종혁 안형숙 안호현 안효일 양기덕 양길자 양대동 양병숙 양선자 양성훈 양우석 양정훈 양정희
 양하나 양인영 양주영 양지원 연연복 연현철 연현철 오경진 오귀애 오미희 오세성 오영선 오옥남 오인환 오정석 오정환 오정훈
 오종숙 오종훈 오주현 오지철 오지현 오진선 오철환 오춘매 오춘숙 오종기 오현정 오희수 오희숙 옥다솔 왕은순 원경식 원영연
 원인영 유경자 유미숙 유 숙 유숙희 유순애 유승연 유영운 유윤식 유인숙 유지민 유혜영 유희경 육소인 윤경애 윤도희 윤동노
 윤미애 윤선화 윤소영 윤은희 윤인선 윤재후 윤지숙 윤진숙 윤치현 윤현옥 윤홍자 윤효석 이강석 이경애 이경여 이경옥 이경혜
 이경환 이규원 이금숙 이금주 이기호 이길자 이나은 이동근 이동욱 이두식 이만수 이만재 이명옥 이명혜 이미경 이만재 이방자
 이병열 이보차 이복금 이복동 이복소 이상구 이상귀 이상엽 이상윤 이선민 이선애 이성범 이성자 이성희 이소연 이숙노 이순금
 이순이 이순자 이승엽 이양자 이연수 이연향 이연희 이영숙 이영순 이영임 이영희 이예숙 이예진 이옥희 이요한 이용승 이우령
 이운천 이원미 이유진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재령 이재만 이재준 이재희 이정우 이정연 이정옥 이정원 이정희 이제현 이종임
 이주환 이준화 이지옥 이지은 이지인 이지현 이지훈 이창경 이창엽 이채미 이철향 이춘자 이태숙 이태순 이태실 이태종 이한선
 이현경 이현아 이현애 이형자 이혜영 이 호 이홍재 이희숙 임경애 임교선 임대홍 임동균 임동은 임목상 임미자 임미정 임병남
 임복덕 임서영 임선혜 임수주 임순희 임 옥 임옥연 임용숙 임정렬 임주연 임태현 임현준 임현진 임혜자 장래영 장명수 장명호
 장복자 장순자 장용근 장재진 장정례 장정순 장진희 장철환 장춘자 장혜랑 장효숙 전경복 전동원 전병주 전상아 전성실 전영구
 전옥소 전용민 전용경 정경화 정대균 정동욱 정상은 정상인 정선경 정선화 정세훈 정소영 정순이 정안진 정연호 정영선 정옥주
 정완식 정용운 정윤희 정재현 정정윤 정지인 정지혜 정진규 정찬록 정대양 정태원 정평화 정하영 정혜원 정홍경 정효남 정희자
 제민경 조건웅 조경자 조나라 조도연 조문경 조병희 조부귀 조우진 조원주 조주연 조현수 조혜진 조희문 주선미 주영신 지안나
 지정순 지창순 지 형 진갑연 진정자 진창환 차명훈 차영미 채상경 채중서 채행찬 채희정 천봉소 천유진 최경희 최길분 최동철
 최명근 최문성 최보성 최선명 최성지 최성진 최성태 최세화 최소중 최소형 최승한 최영록 최영호 최옥경 최옥란 최 용 최운근
 최원정 최윤보 최은영 최정원 최정윤 최정은 최정자 최제원 최준일 최지영 최진이 최춘자 최한기 최해순 최현주 최형기 최호순
 최환희 최희중 추명진 탁정환 태철민 하명자 하복례 하봉자 하정순 하지윤 한기봉 한동수 한미정 한승지 한영미 한윤애 한은비
 한화수 함재정 허 경 허만옥 허미래 허선아 허영진 허인숙 현문섭 현정순 현정애 현해서 홍금선 홍석준 홍숙희 홍순옥 홍승애
 홍영덕 홍인자 홍재모 홍정자 홍정희 홍주희 홍정자 홍필선 황경혜 황규홍 황영옥 황영옥 황은희 황정록 황정숙 황춘의 박미리
 성희찬이 돈암동성당 킹스쿨학원 이행자 임정옥 Fr.구분석 Fr.김연범 Fr.김윤상 Fr.박규흠 Fr.박민재 Fr.박우준 Fr.이계호 Fr.이병철
 Fr.이승규 Fr.임상무 익 명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루카 9,60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현재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1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땀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 02) 727-2407, 2409

후원 미사 | 매월 첫 목요일, 가톨릭회관 1층 강당

홈페이지 | <http://mission.catholic.or.kr>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 미사 · 특별 강의:** 월례미사 및 해외선교 관련 행사에 초대합니다.
- **소식지:** 해외선교사제와 후원회 소식이 담긴 간행물을 분기별로 우편발송 해드립니다.
- **연말정산:** 후원금을 납부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신청자에 한함]

※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동일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구 방침에 따라 회원명을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 사제들이 미사와 기도 중에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후원 계좌 -

우리 454-035571-13-101 · 국민 375-01-0091-080 · 신한 140-009-624437 · 농협 386-17-002881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후원 방법 [①,② 중 택일] -

① QR 코드 접속 또는 ARS 1877-1336

-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한 정기·일시 후원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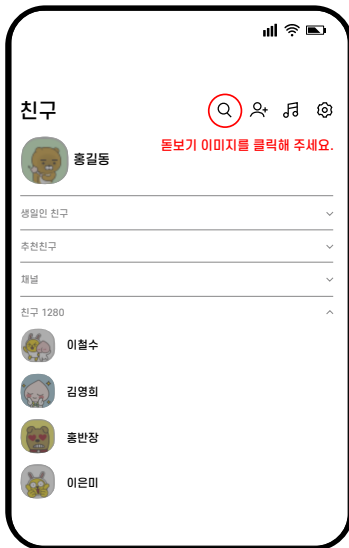
② 직접 후원계좌로 송금 또는 자동이체 신청 후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위의 4개 은행 중 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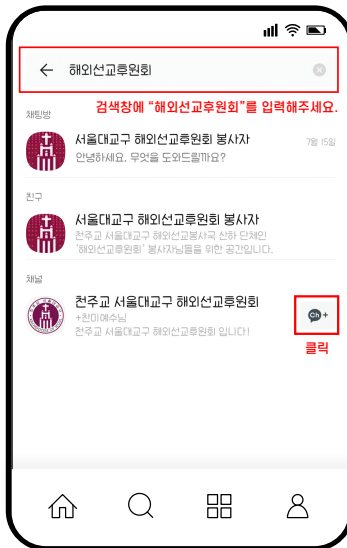
후원 신청 QR

해외선교후원회 카카오톡채널 추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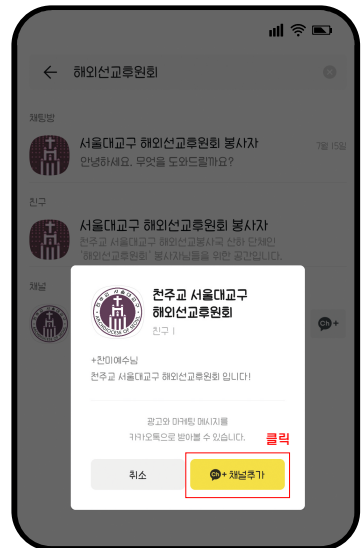
채널 추가 방법 ①



- 1 카카오톡 실행 후 상단 위의 **동보기 이미지** 클릭!



- 2 해외선교후원회를 입력한 후 [천주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버튼 클릭**



- 3 **채널추가 아이콘** 클릭

채널 추가 방법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 1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2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 3 홈에서 채널 추가



※ 채널에 가입하시면 모바일을 통해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받는 소식을 원하지 않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필히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2년 7월 7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김재원 베드로사벨 신부
(대만 선교)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후원회 월례미사

매월 첫 목요일

일시: 2022년 8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안토니오 국장신부
김윤상 프란치스코 차장신부

대상: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공지사항



회원정보 변경 요청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 회원
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
식지 반송 및 기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필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 사무실 안내

업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교구청 휴무일 제외



해외선교 후원계좌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우리은행

454-035571-13-101

국민은행

375-01-0091-080

신한은행

140-009-624437

농협은행

386-17-002881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소명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신부님께서는 해외선교봉사국 사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2-727-2424 | mission@seoul.catholic.kr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해외선교 희망사제 모임 (담당 차장 신부 주관)	8월 8일(월) 10월 10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별관 5층 회의실
해외선교 지원사제 모임 (담당 주교님 주관)	9월 5일(월) 12월 5일(월)	오후 5시	교구청 본관 3층 3회의실